

3월30일(월)

제목: 뿌리고 거두는 자

사도신경/찬송:78장/요한복음4:35-38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마을의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시고 이제 시작되는 영적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물질적 추수는 녀 달 뒤이지만 영적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셨다.(35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는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물려나온 마을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제 추수할 곡식들(예수님께 나온 자들) 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데 누가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뿌리는 자’ 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그것을 ‘거두는 자’ (36절)는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뿌리는 자’ 와 ‘거두는 자’ 에게는 상급과 영생과 즐거움을 보상받는다 하셨다.(36절) 사실 ‘거두는 자’ (제자들)는 ‘뿌린 자’ (사마리아 여인)에 비해서 덜 고생하는 것이 되겠지만(38절) 그들에게 엄청난 상급과 보상이 주어진다. 오늘날 성도들은 ‘뿌리는 일’ 과 ‘거두는 일’ 을 동시에 한다. 복음의 씨도 뿌리고 또 그 씨가 잘 자라게 기도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뿌리고’ 또 ‘거두는’ 사람이 어떻게 이생과 내생에서 복을 안 받을 수가 있으랴?

3월31일(화)

제목: 예수님을 전해야 예수님은 믿는다.

사도신경/찬송:133장/요한복음4:39-42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의 과거를 꽤 뚫어 알고 계셨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다.(39절)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동안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그를 온전히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다.(40-42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비로소 참 신앙의 단계에 들어섰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만 하였다. 그리고 인도된 그들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신앙이 완전해졌다.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그 새신자들이 직접 예수님과 과 부딪쳐서 해결해야 한 부분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많이 주어야 한다. 교회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새신자를 위해서 항상 주변 것 보다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주일 대 예배는 어떤 새신자가 앉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초점을 항상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추어야 한다.

4월1일(수)

제목: 전도자는 잘 살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찬송:241장/요한복음 4:43-45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들어가셨다.(43절)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인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다. 갈릴리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다.(45절) 효과적인 전도는 예수에 대한 지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여줄 때 더 효과적이다. ‘아는 것’ 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 이 더 중요하다. 어릴 때 소년 예수의 코 흘리던 모습을 보아왔던 고향사람들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기사를 본 이상에는 그를 메시아로 안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전도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도자는 전도대상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도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자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전도자의 삶이 짜증과 좌절과 패배로만 가득차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삶은 기쁨이요 평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4월2일(목)

제목: 한 단계 성숙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찬송:252장/요한복음 4:46-51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때 한 왕의 신하가 나아와서 병든 아들을 고쳐 달라고 간청하였다.(47절) 그는 예수님을 재촉해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가기를 원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49절) 죽기 전에 와 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님이 질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아직 불완전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였고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아들에게로 향했다.(50절) 이 대목은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갔음을 의미한다. 그는 이전까지는 기적에 근거한 신앙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전향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드렸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음을 믿었다. 어떤 성도들은 기적, 표적, 병 고침, 환상, 방언, 은사. 같은 것만을 추구할 뿐 ‘말씀’ 에 대한 순종과 결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보다 기적을 중시하는 사람의 신앙은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4월3일(금)

제목: 사람의 판결과 예수님의 판결

사도신경/찬송:253장/요한복음 5:30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0절)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내리는 판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주장하신 말이다. 사람의 판정은 그 자체가 불안하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확하다. 사람의 판정은 매우 불안하다. 만약에 자존심에 크게 손상이 간 사람이 뭔가를 판결한다면 그는 보복성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또 사람은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주입 받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은 무슨 판결을 내릴 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질투심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판결한다면 그의 분노가 그 판결에 개입될 것이 뻔하다. 더군다나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판결은 그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뻔하다. 이렇듯 사람의 판결은 불완전하다. 사람은 맹목적이고, 무감각하고, 고의적이고, 무지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결은 분명하다. 지금 나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대한 그의 판결과 체크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그의 판결이 미래에 언젠가에 내 앞에 내려질 때도 나는 그 선고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